

## ☞ 공동체 소식

성당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 주세요(초록통 : 음식물, 회색통 : 재활용, 고동통 : 잡쓰레기).

■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뉘우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녀들을 모두 사랑의 품으로 받아 주시고 빛나는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어린양의 파스카 잔치에서 천상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 3월 요셉 성월

- 매 미사 전 기도문은 성요셉 성월기도문(매일미사 책 9쪽)을 바칩니다.

### ■ 2025년 사순시기 - 슬기롭고 영적인 사순시기 보내기

- ①사순시기 동안 평일미사 참례하기
- ②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하기(목요일 저녁미사/주일미사 전)
- ③사순시기 성시간 참례하기(첫 목요일)
- ④사순시기 동안 매일 당일 매일미사 책 읽기
- ⑤삼종기도 매일 기도하기(기도표에 체크하기)

### ■ 부활 판공

- 부활 판공 성사는 매 미사 30분 전에 있습니다
- 부활 판공 외부 신부님 판공일 : 4월 13(일), 오전 10시부터
- 예수회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 ■ Rice Bowl

- 사순시기 희생과 보속의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Rice Bowl 을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셨다가 부활절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 ■ 성시간

- 4월 3일 목요일 미사 후

### ■ 4월 5일 토요일 미사전례

- 꾸리아
- 꾸리아 월례회 : 4/5(토) 오전 9시 교육관 106호

### ■ 4월 성경 통독

- 콜로새 1,1-2,23

### ■ 성인 예비신자 교리

-일시: 4월 3일(목), 성시간 후

### ■ 청년 예비신자교리 및 재교육

- 일시: 3월 30일(일), 대건관 4호
- 문영균 수사님

### ■ 청년회

- 오늘 청년회가 대건관 4호실에서 있습니다.

### ■ 유아세례 신청 받습니다

- 4월 13일 까지 사무실
- 세례식 : 4월 20일 부활 대축일 교중미사

### ■ 예비신자 세례식

- 4월 19일(토) 부활 밤 미사

### ■ 4월 매일미사책은 성주간이 포함되어 \$12입니다.

매일 미사책 구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모임 및 회의

- 하사회 : 3/30(일) 교육관 201호
- 구역장회 : 4/6(일) 교육관 106호
- 사목회 : 4/6(일) 교육관 107호

### ■ 자동차 축복 예식

- 일시: 4월 6일(일) 교중미사 후
- 원하시는 분은 4월 5일(토)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밥나눔 안내

- 사순시기동안 주일 밥나눔은 없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 반찬 나눔

-오늘 주일 미사 후에 70세이상 신자 분들에게 오징어젓갈과 오뎅볶음을나눠드립니다. 신자 모든 분에게도 오징어젓갈을 나눠드립니다.  
-반찬 나눔 회의: 4월 1일(화), 저녁미사 후

### ■ 연도 안내:

- 샌리앤드로 구역 송인숙 수산나 부친 고 백요한 영혼
- 3월 30일(일) 미사(8시/11시)

###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마리아, 조상희마리아, 정화봉로사, 정연중비오, 최라파엘, 전옥분크리스티나, 황정숙말찌나, 권주선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발바라, 박숙모아네스, 박인규시몬, 이은자마트로나, 김옥자마리아, 유낙양베로니카, 장민우, 이영아아나스타시아, 임희숙세트리다, 이줄리울리안나, 조지현안젤라, 하숙연베로니카, 신재극스테파노, 조진행바실리오, 김혜숙아네스

### ■ 어르신 휴대전화 사용 문의- 친교실 본당청년/하사회

### ■ 성당 내 안전 유의

-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 ② 성당 의자/식탁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 ⑤ 히터 사용 후에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 ■ 평일 성당 출입 안내

- 월요일~금요일 평일 낮에 성당 출입은 63가 게이트로 출입해주시길 바랍니다.

### ■ 성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그라체(4/5)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 사순 4 주일

오늘 복음에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부자간에 견주며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로, 구약성경에도 비슷하게 자주 등장 하던 것입니다.(탈출 4,22; 이사 1,2; 예레 31,9.20 등) 특히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백성의 불충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호세아서 11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저버리겠느냐? ...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호세 11,8)

이는 또한 쥐엄나무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비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고 탕진한 아들이 돼지치가 된 뒤 배고픔에 시달리다, 돼지 밥이라도 먹기를 바랐지만 얻지 못했다는 대목 때문입니다. 루카복음에 돼지 밥으로 나오는 ‘열매 고투리’가 바로 쥐엄 열매입니다. 이는 쥐엄 열매의 생김새가 콩고투리 같아서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된 듯합니다. 쥐엄 열매는 껍질을 먹는데요, 맛은 초콜릿과 비슷하지만 끝맛이 짝어 즐겨 찾는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에 좋다고 찾는 이들이 늘었지만 말입니다.

쥐엄나무는 히브리어로 하루브, 영어로는 캐럽(carob)입니다. 일명 ‘메뚜기 나무’로도 통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하루브’가 메뚜기를 뜻하는 ‘하가브’와 비슷해서 그런 듯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 먹었다는 마르코복음 1장 6절의 메뚜기를 쥐엄 열매로 보기도 합니다. 늦여름부터 갈색으로 완숙하는 쥐엄 열매는 많은 양을 거둘 수 있으므로, 빈민의 구황작물이자 동물 사료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쥐엄나무가 가난의 상징이었지요. 그러다 캐럽(carob)이 캐럿(carat)으로 발전하며 부의 상징으로 뒤집히게 됩니다. 고대에는 쥐엄 열매의 씨가 무게를 재는 단위로 쓰였는데, 이것이 이후 보석의 단위로 신분(?)이 급상승하면서 마태오 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꼴찌가 첫째 된 셈입니다.

다만 쥐엄나무는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일흔 해가 지나야 첫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쥐엄나무의 이런 특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빌로니아 탈무드」 타아닛 23ㄱ에 나오는데요, 이는 ‘호니’라고 하는 한 의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 안에서 호니는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되돌리실 제 우리는 마치 꿈꾸는 이들 같았네”(시편 126,1)라는 구절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바빌론으로 유배당한 이스라엘(기원전 6세기)의 ‘운명이 바뀌어’ 유배에서 풀려나는 데 일흔 해 걸렸는데(2역대 36,21) 어떻게 그 일이 잠들어 ‘꿈꾸는’ 동안 가능한지 연구하였답니다. 성경을 너무 자구적으로 해석한 사람 같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쥐엄나무를 심는 걸 보고, “그게 열매 맺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심느냐?”고 호니가 물었답니다. 그 남자가 70년이라고 답하자 호니는 “당신은 70년을 더 살 자신이 있나 보군요?”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답합니다. “나는 내 조상이 심은 쥐엄 열매를 먹었소. 이건 내 후손을 위한 거요.” 그 뒤 호니가 밥을 먹고 깜빡 잠들었는데, 깨어 보니 어떤 남자가 열매를 모으고 있더군요. 호니가 그를 보고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냐?”고 물으니, 그의 손자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호니가 잠든 동안 일흔 해가 흐른 셈이죠. 놀란 호니가 집으로 가니, 아무도 그를 호니라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호니는 슬퍼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청한 뒤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달하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유배에서 구원받기까지 과정은 길어 보이지만, 일단 지나고 나면 꿈을 꾸 듯 쓴살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그냥 건너뛰려고 하면 그 안에 담긴 삶과 추억을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이죠. 70년 자란 뒤 열매를 맺는다는 쥐엄나무는 우리에게 ‘인내’라는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제1독서에 실린 여호수아기의 말씀도 기다림과 인내의 한 예를 보여줍니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탈출하여 끝날 것 같지 않던 사십 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 끝에 이집트의 ‘수치’를 떨치고 새 땅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옛것을 넘어 새것이 되도록”(2코린 5,17) 메시아께서 오시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기까지(2코린 5,21) 구약 시대 내내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톨릭신문]

###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37명	183명	220명

주일헌금		2차 헌금		교무금	BISHOP	감사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기타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교무금]:강신호(1-3), 송인환(3-4), 김세록(1-3)					김세록		김세록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3/30(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4/1(화)	연 최정자 켈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김영자 세실리아	장철호/ 송아네스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4/2(수)	연 윤전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김마르코	가족		연 김영택 다니엘	김케넷스 가정
	연 최순일 요셉	순배 수산나			
	연 박영자 클라라	이수나 유스티나			
	연 김정희 올리엠타	가족			
	연 박종섭요셉/정율리안나	가족	4/3(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변희삼 스테파노	정분다		연 이용 요셉	이소지 마리아
	연 변희삼 스테파노	천다니엘		연 한동철 안젤로	가족
	연 백상권 요한	송인숙 수산나		연 서정원 미카엘	유성규
	연 이종선	정분다		연 박명순 아가다	유성규
	연 홍모니까/김요한	정분다		연 최희영	최실비아
	연 서데레사/정요셉	정베드로		연 장예분	최실비아
				연 박판기 세실리아	최다니엘/루시아
				생 이연 피터	이욱경 글라라
				생 이영 크리스티나	이욱경 글라라
				생 유윤미 리디아	전수산나
3/30(일)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생 장민우	전데레사			
	생 손영혜 세라피나	이영아아나스타시아	4/4(금)	생 조지현 안젤라	최영자 세레나
	생 조진행 바실리오	양인심 엘리사벳			
	생 조진행 바실리오	박경림글라라가족			
	생 황성국 베드로	황선희 세실리아			
	생 황정숙 말피나	김영선 안젤라	4/5(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자녀들	윤루카/루시아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김만옥 요안나	윤루카/루시아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허홍숙 세실리아	이베로니카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생 권영섭 요셉	김엘리사벳		연 본당 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생 권주선 다니엘	김엘리사벳		연 박진영 베드로	박덕희 마리아
	생 이휘라 카타리나	김정옥 그라시아		연 박판기 세실리아	최다니엘/루시아
	생 김미혜 폴리나	김정옥 그라시아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생 강요한 박글라라 가정	천다니엘		생 장민우	송아네스
	생 조진행 모나셀라 가정	천다니엘		생 최쨬마 수녀님	염파트리샤
	생 이명란 아네스 가정	천다니엘		생 이한진 미카엘	가족
				생 이명국 바오로 가정	가족
				생 김예빈 글라라	염파트리샤
				생 꾸리아 활성화	꾸리아

<p><b>대 건 한 의 원</b> 한의학박사 이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p>	<p>폴킴 &amp; 김영선 안젤라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847-5837/418-0358 DRE #01851957 #01036902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amp; Associates</p>
--	--	---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 유인웅 닥 윗 오일공-오파오-칠육삼팔  
 이범준 요 셉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파구-삼삼일일

2025년 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자) 사순 제4주일    2025년 3월 30일 (제2127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토/일(8am~4pm)

홈페이지: WWW.OAKCC.ORG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아에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여호수아 5,9-11.10-12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제2독서    코린토 2서 5,17-21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복음    루카 .15,1-3.11-32

영성체송

아들아,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성가]	8시	입당	118	봉헌	248	성체	188	파견	280
	11시	입당	118	봉헌	217	성체	197,157	파견	280
사순 제4주일	3월 30일(주일)			4월 1일(화)	4월 2일(수)	4월 3일(목)	4월 4일(금)	4월 5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유인웅 닥윗	정미경 말가리다	황혜정 데레사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꾸리아		
독서	김원덕 시몬	김학철 요한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정인경 가브리엘라	꾸리아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이성연 베로니카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